

시편 50편 연구

방석중*

1. 서론과 문제 제기

시편 50편은 본문비평과 함께 번역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 50:1-23의 단락은 서설 부분들(50:1-7), 두 개의 주요 부분(시 50:8-15와 16-22)과 그리고 마지막 결말(시50:23a와 23b)로 이루어진다. 우선 서설 시 50:1-2는 시온 계시요, 시 50:3-6은 시내 계약인데, 이런 두 서설은 각기 다른 장소와 영역들을 전제한다. 시온이 유다 전통이라면, 시내는 북이스라엘 전통이다. 이런 양 전통을 공통적으로 연결시킨 표현이 시 50:7이라 생각된다. 일찍이 침멀리(W.Zimmerli)는 시 50:7을 하나님의 자기 표현 공식이라 했다. 그러나 “야웨, 너의 하나님은 나다”(시50:7 후반절)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는 축제적-직접적, 인격적-계약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 시 50:14절은 “제물”보다는 “감사”를 촉구한다. 이런 감사는 제물을 전제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태도를 우선하는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축제와 예배(제사)를 말하는 시 50편의 단락에서 특히 50:7과 14절을 중요하게 다루고, 야웨의 자기 표현 공식(시 50:7)을 전체 문맥에서 그의 삶의 자리와 연결해서 고찰할 것이며, 50:14절의 “감사 행위”를 제사적인 예배와 예언자적인 정신 사이에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므로 시 50편의 삶의 자리 규정을 위해 여러 학자들과 토의를 전개하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본다.

2. 시 50:1-23 번역과 비교

시 50:1-23절 가운데서 4, 5, 7, 14, 16, 18, 19 등 일곱 개의 절들을 문장적-구

* 감신대 교수, 구약학.

문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시 50:4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로 번역하였다. 마소라 본문은 “그가 위에서부터 하늘을 부르시고, 그 땅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로 번역할 수 있다. 첫째 상반 절과 하반 절 사이에 중간 쉼표 아트나흐가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따로 떼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선명하다. 아트나흐 다음 문장은 분사구문이다. 50:5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는 개정판에는 2인칭 복수 “너희”가 빠졌다. 시 50:7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라고 번역한 개정판에 비해서 “하나님”을 “야웨”로 고쳐서 읽는 것이 고정된 계약 표현 공식에 따라 적절하겠다. 크라우스, 「시편 주석」 526에서 원래는 야웨 이름이 엘로히스트로 고쳐진 부분임을 지적하고 있다. 시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는 제물로서 감사를 의미한다. 즉 짐승 제물 대신 감사하는 마음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이다. 시 50:16 “...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라는 개정판은 “네가 어찌서 ... 늘어놓으며, 내 계약법을 네 입에 올리는가?”로 표현을 고칠 것을 제안한다. 시 50: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라는 개정판의 것을 “도둑을 보면, 너는 그와 함께 기뻐하고, 간음자들과 더불어 몹을 나눈다.”로 직역을 제안한다. 시 50:19 “...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는 “... 네 혀는 속임수를 엮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시 50편의 문학비평적 검토

시 50:1-23의 단락을 조감하면 우선, 서설 1-2, 3-6절; 서두 표현 공식 7절; 본론 8-15절과 16-22절; 총괄적인 결말 23a 와 23b 로 분류된다

시편 50편에서 우리는 문학비평적으로 몇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 50편의 서설 부분과 본론 부분의 한계를 확정하는 일이다. 이미 많은 주석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두 종류의 단위 경계가 규정되어 왔다. 1-7절이 8-23절의 본론 부분 앞에서 서설에 속하는 것인지¹⁾ 아니면 1-6절이 본론 부분 앞에서 서설에 속

1) S.Mowinckel, *Psalmen Studien VI, Die Psalmdichtung*, 1921-1924(1961), s.53: 여기서는 전적인 제물의 거절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신탁 진술의 입장이 그런 말씀 가운데 총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시 50:8-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후자(이것을)를 이행해야 하며, 전자(지것도) 빠뜨려서도 안된다.”; 동저자 Psalstud V.S.110: 시 50:7절은 시 81:11; 95와 마찬가지로 자기 계시의 서두이다. 계속해서 Psal Stud.VI, s.51. 각주1 시 50:8-23을 참조하라; H.Gunkel; *Die Psalmen*, 1926, s.216 이하. 7a.b.21c절은 축제적인 서두와 함께 예언자 이야기 방식의 범례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인지²⁾를 인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의미에 일치해서 서설과 본론의 한계가 결정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면 7절 자체가 본래적으로 무엇을 진술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7d절(7a-d절 가운데서)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는 여기서 단순히 하나의 표현 공식으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다음에 나오는(8절을 보라) 제물 계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7절(7d)은 내용적으로 8절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8절은 앞에 나온 5절(제물 예배에서의 계약)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절은 1-6절을 위해서 서설들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뒤에 나오는 본론 부분 8-15절과 16-23절과도 관련된다. 둘째로, 본론 부분 뒤에 나오는 23절이 총괄적인 결말이요 동시에 23절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다. 이미 쉬미트³⁾가 주목하게 했던 바와 같이, 23절은 한편으로는 제물 헌납 대신 짧은 감사사와 찬양(23a)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법적인 행위 대신 변화를 기대하는 제의적인(예배적인) 계명(23b)을 총괄하고 있는데, 23a는 앞에 나온 8-15절의 내용을, 23b는 16-23절의 내용을 요약한 결말이다. 셋째로 시내 계약이 시온 계시의 틀 속에 흡수되어 그 안에 부분 서술로 끼어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점이다(2절과 3절을 비교). 왜 7d절의 표현 공식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은 1-2, 3-6 다음에 나오고 있는가? 이런 표현 공식은 기능상 8절 앞에서 그리고 서설 1-6절 뒤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전체 본론절을 위해 내용을 총괄하는 서두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에서 우리는 기교적인 구조를 알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1-2절의 ‘시온 계시’가 8-15절과 관련되고, 결말 부분 감사 제물/찬양을 말하는 23a절과 관계를 맺는다면, 3-6절 ‘시내 계약’은 16-22절의 윤리적인 계명 사항과 관련되며, 결말 부분의 구원받은 변화된 생활인 23b와 관계를 맺는다. 그 옆에서 7절만은 서설 부분들(1-2, 3-6)을 총괄한다. 왜냐하면 7절은 내용적으로 위에 언급된 측면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뒤에 가서 취급하게 될 유형 규정을 위해서 궁켈이 이미 주제적으로 표시해 두었으며 많은 주석자들이 발표한 적절한 파악에 근거해서 함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2) H. Schmidt, *Die Psalmen*, 1934, 97을 보면 v.1-2. 3-6. 7-15. 16-22로 나누어진다. A. Weiser, *Die Psalmen*, ATD 14/15, 1963, s.266, “찬양적인 서두는 1-6절이다. 7-21절은 본래 질책문이다...”. H.J.Kraus. *Psalmen*, 19, s.374 참고.

3) H.Schmidt, a.a.O., s.97 참고

시편 50:1-23⁴⁾

- I 서설 부분들 1-6 : 1-2 시온 계시
 - 3-6 시내 계약 서술
 - 7 : 축제적인 표현 공식(계약 공식)
- II 본론 부분들 8-15 : 첫째 부분 절들
 - 8-13 부정적인 것
 - 14-15 긍정적인 것
- 16 둘째 부분 절들
 - 16-20 질책문에 나타난 것들
 - 21 계명과 윤리 도덕성
 - 22 경고와 위협
- III 결말 23 : 총괄 구절
 - 23a 감사 제물/찬양
 - 23b 변화와 구원

4. 시 50:7절과 14절의 어의 분석과 양식사적인 탐구

4.1. 어의 분석

A. 시 50:7;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 공식은 폰 라트 이후 자기 소개⁵⁾로 표시되었으며, 그 후에 침멀리에 의해서 이것은 ‘자기 소개 표현 공식’⁶⁾으로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렌트로프⁷⁾에 의해서 다시 논의되어야만 했다. 그 후에 다시 스멘트⁸⁾에 의해서 이 표현 공식은

4) H. Gunkel, a.a.O., s.216 이하를 보면 22, 23절은 긍정적인 총괄이다. A.Weiser, a.a.O., s.266; 23절은 권면과 구원 약속의 총괄 요약이다; H.J.Kraus, a.a.o., s.374; 23절은 총괄 요약 부분이다.

5) G.von Rad, *Das Formgeschichtliche Problem des Hexateuchs*, 1938. s.21.

6) W.Zimmerli, *Ich bin Jahwe* (1953), in: *Gottesoffenbarung Gesammelte Aufsätze zum Alten Testament*. 1963 s.15, 36.

7) R.Rendtorff, *Offenbarungsvorstellungen in Alten Israel, Offenbarung als Geschichte*, hg. von W. Pannenberg (Kerggma und Dogma, Beiheft 1), 1961, s. 21-41. s.53 Anm. 69, 70 을 보라. (Gesammelte Stud. 2. AT, 1975,53): A. Jepsen, "Berith" Ein Beitrag Zur Theologie der Exilzeit, in : "Verbanung und Heimkehr" Festschrift für W. Rudolph hrsg. A. Kuschke, 1961. s. 172-174. bes s. 175. Anm.20. 여기서 저자는 [아노키 야웨]가 자기 소개 표현 공식 (Selbstvorstellungsformel) 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런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 R.Smend, *Die Bundesformel*, 1963, s.6f

‘계약 표현 공식’,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약 체결 공식’으로 표시되었고, 스멘트 옆에서 로핑크⁹⁾는 단순히 ‘계약 표현 공식’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엘리저¹⁰⁾는 ‘성결법 표현 공식’ 옆에 좀 긴 표현 형식을 은총, 자비 표현 공식으로 규정하였다. 최근에 와서 쉬미트는 “나는 야웨, 너의/너희 하나님”을 소위 ‘자기 소개 표현 공식’¹¹⁾이라고 표시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를 소위 ‘계약 표현 공식’으로 표시하였다.

우리가 스멘트와 쉬미트와 함께 이런 표현 공식을 취급한다면, 쉬미트는 계약 표현 공식을 위해서 일단 스멘트와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은 동사적인 문장¹²⁾에 속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명칭과 다른 인칭어미형을 가진 또 다른 명칭으로 연결된 명사 문장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장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멘트는 일반적으로 인칭어미형 너의/너희 하나님이 없는 혹은 인칭대명사 나(아니, 아노키) 없이 이루어진 동사 문장들을 계약 표현 공식/계약체결 표현 공식(예를 들면 레 26:45; 신 29:11-13; 렘 11:3f; 31:33; 겔 34:24f; 37:26f; 신 26:17)으로 부르고 있다. 물론 동사 문장들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표현 공식으로 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표현 공식 옆에서 우리는 스멘트에 의해서 다른 문맥에서 표시된, 계약 표현 공식을 목적에 따라 끌어들이 수 있다. 그것은 곧 “나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의 명사적 문장의 특징적인 표현 공식으로서 계약 표현 공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쉬미트는 명사 문장,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는 자기 소개 표현 공식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를 계약 표현 공식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링그렌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와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이 양 문장을 위해 붙여진 상투적인 표현 공식으로 “계약”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쉬미트와 링그렌은 공통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를 계약 표현 공식으로 규정한 것을 인식

9) N.Lohfink, *Das Hauptgebot*, 1963, s.100.

10) K.Eillger, *Leviticus*, HAT, q966, s.237f.

11) W.H.Schmidt, *Elohim(Gott)*, In : THAT, Bd1, 1971,sp. 162f; vgl. H.W.Wolff, *Hosea*, BkAT, 1961, s.289.

12) 예를 들면 레 26:45 “나, 야웨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lihjet lahem le'elohim 'ani jhwh) 부정사 구문은 하나님 명칭에 아무런 인칭어미형(Suffixform)이 없다. 신 29:11-13. “너의 하나님 야웨와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l'abr'ka.. 너의 하나님 야웨의 언약에 참여하여 라는 문장은 동사 문장에 속하지만, 야웨 명칭 앞뒤는 야웨에 대한 1인칭 대명사 ‘아니’(나)가 없다. 이런 모형, 범례는 새롭게 요청된 계약 표현 공식(Bundesformel)과 다르게 계약체결 표현 공식(Bundesschlüßformel)을 대표한다. 계약 표현 공식의 양식에 대해서는 양식사(Formgeschichte)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다.

케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사이에 차이점도 알 수 있다.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는 쉬미트에 의해서 자기 소개 표현 공식으로 표시된 반면에, 같은 명사적 문장이 링그렌에 의해서는, 계약 표현 공식으로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이런 경우 링그렌은 로핑크와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자기 소개 표현 공식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 렌트로프의 이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스멘트로 돌아가서 그의 표현 규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스멘트에 의해서 규정된 계약 표현 공식/계약체결 표현 공식은 문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스멘트는 계약 표현 공식/계약체결 표현 공식을 다만 동사적인 문장을 위해서만 끌어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성결법¹³⁾(레 17-26)에 나오는 명사적 문장의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의 예문은 계약 체결 표현 공식 규정에는 맞겠으나 계약 표현식에는 적절한 예문이 못된다.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 문장 종류에 따라 그런 표현 공식이 개념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체결 표현 공식을 계약을 체결 실행하는 본래적인 행위 방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계약 표현 공식은 ‘규범적인 정언’으로 특징지어진다.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라.”

B. 시 50:14a; “감사를 제물로 드려라!”

궁켈 이후 14절은 “감사제물인가 아니면 찬양인가”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표현 공식이 제물 짐승 및 제물 도살의 수행 없이 감사로서 영화(Spiritualisiert) 된 것인가 아니면 감사제물 식사를 수반한 감사제물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찰하자면 일반적으로 두 계열을 음미할 수 있다. 이 두 계열은 공통적으로 감사제물 식사와 제물의 전제를 받아들이지만, 예배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제물인가 하는 것이다. 양자를 날카롭게 분리하는 경우 “영화”의 문제가 생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제물 없이 감사하는 마음”인가를 철저하게 다루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계열을 분류하자면 궁켈¹⁴⁾, 헤르밋손¹⁵⁾, 렌트로프¹⁶⁾, 자이볼

13) 이에 대해서 이미 K.Elliger, *Leviticus*, 1966, s.238에서 엘리거는 긴 형식 “나는 야웨 너희 하나님이다”는 은총, 자비 표현 공식(Huldformel)으로서, 짧은 형식 “나는 야웨이다”는 성결 표현 형식(Heiligkeitsformel)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계약 표현 공식(Bundesformel)으로 시정하는 것이 더 낫다.

14) H.Gunkel, *Die Psalm* 주, 1922, s.217.

15) H. Hermisson, *Sprache und Ritus*, 1965, s.36.

16) R.Rendtro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n Alten Israel*, 1967, s. 136; 좀 다르기는 하지만 G.Quell, *Das Kultische Problem des Psalm*, 1926, s. 94-95에서 크벨은 감사 제물의 영적인

트17). 다이슬러 18)의 제물 대신 '영화'를 강조한다면, 모빙켈 19), 크라우스 20)는 제물의 식사공동체의 새로운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그러나 양 계열은 본질적인 거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지금까지 제한된 의미에 붙들려서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시내 계약(1-3절), 심판하시는 하나님(6절) 그리고 시내에서의 제물 예배의 계약 체결(5절과 7절)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문맥에서 계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계약에 관해서 말하자면, 렘 31:33-34는 새 계약에 근거해서 최악의 사죄를 생각하고 겔 16:60은 하나님의 선취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빙켈 21)과 함께 다음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계약 의무의 파기로서 간주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시 81; 95; 50)은 불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칭의'가 필요하다.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감사와 찬양으로서의 '제물'과 관련해서, 감사제물로서 *rsh*(기쁘게 받다) 동사와 결합된 본문들을 끌어 들일 수 있다. *rsh* 동사 22)의 수동태(완료형과 미완료형)은 "제물에 대해서 기뻐하다",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다"(gnädig aufgenommen werden)는 이런 동사의 기능은 제의 영역에 있어서 야웨의 기뻐하심의 진술이다. 무엇보다 *rsh* 수동태형(레 1:1-4; 7:18; 19:7; 22:22,23,25,27)을 전문 술어(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사적인 제의 신학에서 "야웨의 열납"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는 따라서 *rsh*의 수동태와 일치한다. 예를 들면 레 19:5; 22:19 *lir^e sonkem*; 22:22 *lrason*; 22:27 *jerase*. 이렇므로써 이런 감사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은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의 예배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23). 따라서 종교적인 사상을 제쳐놓고서라도, 제물

상태(Seelenzustand)로 비약시키고 있다. 이것은 Hermisson 이나 Rendtorff 가 이해하는 Spiritualisierung 과는 다르다.

17) K. Seybold, *Die Psalmen Eine Einführung*, 196, s. 49 이하.

18) A. Deissler, *Die Psalmen*, ²1967, s. 37 이하.

19) S. Mowinkel, *Psalmenstudien* VI, s.54 이하. 각주(Anm.) 2를 보라.

20) H.J. Kraus, *Die Psalmen*, 1960: s.378; 그러나 Kraus는 ⁶1989년 개정판, s.534-535에서 Hermisson의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1) H. Mowinkel, a. a. O., s.73 이하. 166 이하

22) W. Gesenius, *Handwörterbuch*, s.771 이하.

23) A. Weiser, Einl.i.d.At, ⁵1963 s. 42; toda(감사)는 본래 신앙 고백이다. 동저자, *Die Psalmen*, 1963, s. 265. 여기서 저자는 14절과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예배 공동체의 겸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 H. Gese, *Psalm 50 und das alttestamentliche Gesetzesverständnis* (Festschr. E. Käsemann, 1976, 57-77; 동저자) *Zur biblischen Theologie*, 1977, s. 75. 76-77에서 그는 "고로 전체적인 율법의 이해는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과 결속되어 있다"고 말하며, 인간의 'Gerechtes tun'을 말하지만, ps 50:14는 Ich Jahwes가 인간에게 촉구하는 명령이요 50:23절은 Ich Jahwes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예배 내부에서도 제물로서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영화' 대신 '칭의'를 기대할 수 있다.

4.2. 시편 50:7 계약 표현 공식의 양식사적인 연구

스멘트와 링그렌은 계약 표현 공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의 명사적 - 논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 표현 공식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 그들은 동사 문장의 계약 표현 공식만 다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독립적인 표현 어법으로서 명사적인 문장을 가진 계약 표현 공식을 계약체결 표현 공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정 제한된 본문들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시 50:7d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는 오경이나 예언서들의 것과 다르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식, 양식은 2인칭 단수 인칭어미(2. pers, Sg. Suffix)를 가진 명사 문장으로 성립된다.

이런 표현 공식을 다른 것들과 분류 비교 한다면 다음과 같다.

명사와 인칭어미 형태 (suffixform)	동사 문장과 계약체결 표현공식 (Bundesschlussformel)	명사 문장과 계약 표현 공식 (Bundesformel)
2인칭 단수 인칭어미 (1인칭 복수 인칭어미)	(독립된 표현 공식이 아닌 인칭어미를 가진 하나님 명칭은 신5:2; 6:4-5; 10:20; 13:12; 15:4를 참조할 수 있음)	출 20:2; 신 5:6; 사 51:15 호 12:10; 13:4; 시 50:7; 81:11
2인칭 복수 인칭어미	출 6:7; 레 11:45; 22:23; 26:12; 램 11:4b; 겔 36:28	출 29:46, 레 18:2,4,30; 19:2,3,4,10,25,31,34,36; 20:7,24; 23:22,43; 24:22; 25:17,38a,55; 26:1,13; 겔 20:20
3인칭 복수 인칭어미	출 29:45; 램 31:33; 32:38; 겔 11:20; 14:11; 37:23,27	출 29:46; 레 26:44; 겔 28:26; 34:30; 39:22,28

계약체결 표현 공식과 계약 표현 공식은 앞뒤로 여러 문장들, 이를테면 명령문, 관계 문장과 결합되면서 독립적인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표현 공식 자체가 어떤 문장 형식으로 성립되어 있는가만 개괄해서 고찰하겠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인간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인정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 명령과 관련해서 "rechtfertigt werden"을 의미한다.

다.

A. 계약 체결 표현 공식은 2인칭 복수 인칭어미와 관계된 하나님 명칭에서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1) *w^hhajiti lakem le'lohim*(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 *lihjot lakem le'lohim*(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3인칭 복수 인칭어미와 연결된 하나님의 명칭도 역시 두 가지 문장으로 나타난다.

1) *w^hajiti lahem le'lohim*(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 *wa'ani 'dhje lahem le'lohim*(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B. 계약 표현 공식은 동사 없이 하나님 명칭에 인칭어미가 표현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대개 2인칭 단수/복수 그리고 3인칭 복수의 인칭어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ānoki jhw^h ěloheka*(출 20:2; 신 5:6; 사 51:15; 호 12:10; 12:4; 시 50:7; 81,11); *āni jhw^h ělohekem*(레 18:2,4,30; 19:2,3,4,10,25,31; 19:34,36; 20:7,24; 23:22,43; 24:22; 25:17,38a,55; 26:1,13); *āni jhw^h ělohehem*(출 29:46; 레 26:44; 겔 20:20; 28:26; 34:30; 39:22,28).

위에서 언급된 두 개의 표현 공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을 골라 분류한다면, 첫째 계약체결 표현 공식은 하나님 명칭에 인칭어미형이 없으나, 그 대신 [haja l^h] 동사와 2인칭과 3인칭 인칭어미를 가진 전치사를 가진 동사 문장이고, 시제는 미래형(pf. *waw consecutiv* 또는 1인칭 미래형)과 부정사형으로 나타난다. 주어는 1인칭 단수(하나님)이고 목적격은 2인칭/3인칭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신명기 5:2; 6:4-5에서는 1인칭 복수 인칭어미(엘로헤누, 우리 하나님)를 가진 하나님 명칭이 나오지만(신 10:20; 13:13; 15:4 참고), 그것은 문장 가운데 신의 명칭이요, 고정된 독립적인 표현 공식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다.

그 다음 계약 표현 공식은 2인칭 단수와 복수 그리고 3인칭 복수 인칭어미를 가진 하나님의 명칭이 나타나며, 한결같이 동사가 없으며 인칭대명사(아니, 아노키) 야웨 고유명사 그리고 하나님(너의, 너희, 그들의 하나님) 3개의 명사들로 이루어진 명사 문장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명사문장의 계약 표현 공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유하는 어조]²⁴⁾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태, 상황에서 이런

24) K. Elliger, *Leviticus*, 1966, s. 238 참고. 여기서 엘리거는 “나는 야웨, 너희 하나님이다”를 Huldformel로 “나는 야웨이다”를 Heiligkeitsformel(성결표현 공식)로 말하고, 전자가 사랑스러운 권면의 어조라면, 후자는 경고 위협적인 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공식과 계약 표현 공식이 쓰이는가? 어떤 내용을 가진 표현 형식인가 물을 수 있다면, 대체로 출애굽 - 땅 점유의 역사 속에서의 구원, 율법 준수, 정결과 성결의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양 표현이 '동사적'과 '명사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취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부과하는 것이요, 이런 부과된 의무가 규범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계약 표현 공식'은 이런 '규범적인 정언'을 나타내는 표현 공식이라 하겠다.

5. 삶의 자리 규정

시 50편의 연구는 그의 삶의 자리를 규정하는 데에 최대의 관심사를 가진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어떤 안내서가 있어, 그가 결과로써 얻어낸 이론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포러의 「구약 주석」 「성서해석학 입문」²⁵⁾을 참조하여 볼 수 있다. 본문의 유형의 삶의 자리는 어문적인 지시와 특정적 - 전형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협정된 술어, 문구와 도식들로써 밝혀진다. 즉 사회적 - 문화적, 좁게는 종교적 사회 공동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문 내부의 전문 술어와 반복되는 문구와 어법들, 다른 문헌과의 평행성 및 친숙성 그리고 내용상의 요점과 중심 사상들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럼 시 50:1-23에는 어떤 전형적인 용어와 표현들이 있는가? 일상 예언자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어법, 제사장의 전문 술어, 제사 공동체의 계명과 율법들이 눈에 띈다.

시 50:2 시온 현현은 암 1:2; 사 2:3; 미 4:2; 시14:7에 나온다. 시 50:4 하늘과 땅이 계약의 증인이 됨은 신 4:26; 30:19; 31:25²⁶⁾; 50:5 제물과의 계약 출 24:4 이하; 신 33:24 등; 50:7 나는 야웨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 형식 또는 계약 표현 공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 출 20:2; 신 5:6; 사 51:15; 호 12:10; 13:4; 시 81:11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인식 공식과 연결된 계약 체결 표현 공식과 비교된다. 시 50:8 '토다 - 셀라뫼'과 '체바해카 - 올로테카'는 사 43:18; 렘 3:6; 7:22; 율 2:13에 나온다. 시 50:1-7 서곡은 시내 전승 단락의 주제와 일치한다. 출 20:22-26(계약 법전); 출 24:3-8(율법 계시); 레 19:1-8(성결 법전); 신 5:1-5(신명기 법)은 구조상 1.신현현(불의 표상), 2.중개자 모

25) G.Fohr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1983, 4.Aufl. 「성서해석학 입문」, 방석종 역, 1987, 120-128.

26) Moshe Weinfeld, "berit", THWAT, Bd I,1973,Sp.795-796을 보라.

세(사제직), 3. 율법 계시(전달), 4. 율법과 제물로써 계약을 체결함; 시 50:16-17 반의적인 평행귀²⁷⁾; 시 50:18-20은 고해 심독서(Beichtspiegel)이다. 이런 금법 조항은 어떤 징책의 위협이 없이 이스라엘인 각자의 양심에 향한다. 그에 대한 것은 출 20:15-16; 레 19:11-12; 시 50:18-20 등이다.²⁸⁾ 다른 예들도 더 있지만, 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시 50:1-23의 구조는 서설(1-7), 첫 번째 담화(8-15) 제의 제물에 관한 것과 두 번째 담화 야웨의 율법에 대한 순종(16-23)이다.

서설(1-6) 뒤에 7절은 두 개의 담화를 안내하는 서두 공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16a의 새 서두문으로서 단절된다. 때로는 예언자적이고, 때로는 제의적인 것을 가지고 제의와 계명이 선포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시 50은 예언자 사상과 어법을 모방한 것인가? 아니면 제의를 행하는 예언 사상의 증언인가?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S. 모빙켈, G. 폰 라트, A. 바이저와 E. 빌트보인이 진술하고 있다. 바이저는 시 50편을 예전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시 50편은 예언자의 형식을 모방한 것인가 아니면 제의 현상이 전제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H. 궁켈은 시 50편을 예언시에 넣었다면²⁹⁾으로 표시했다. 학자들의 시 50에 대한 유형 분류가 서로 다르다 해도 공통적인 전제는 “축제”와 “제의”이다. 그러면 시 50편의 축제 제의의 삶의 자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칼빈은 시 50편에서 축제 때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회고를 갱신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시 50편은 계약 갱신 축제이다. S. 모빙켈은 시 50을 야웨의 회곡적 - 신화적인 왕위 등극 축제 구조에서 통합했다.³⁰⁾ 그러나 A. 알트는 필연법 계약을 반복하면서 갱신되는 제의 행동으로 보았다. 그 후 G. 폰 라트도 시내 전승 단락의 양식사적인 탐구에서 계약 갱신 축제와 부딪힌다. 그 후 계속해서 계약 축제 해석은 대부분 시편의 열쇠가 되었다. 시편 50과 81은 분명히 계약 갱신의 증언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대적으로 초기의 역사로 보기는 어렵다.³¹⁾ 신 31:9-13의 계약제의 가설과의 관계도 불가능하다.³²⁾ 왜냐하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에게서 “계약”은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³³⁾ 언어적인 탐구에서 시 50; 81; 95편은 신명기 배후의 언어군을 갖는다. 특히 그의 정점에는 야웨 - 말씀(담

27) Ed. Koenig, *Stilistik*,... 1900: S.166: 마 4:10; 16:23; 눅 9:55; 행 8:20 비교.

28) 이에 대한 문헌은 K. Galling, *Der Beichtspiegel, eine gattungsgeschichtliche Studie*, in : zur neueren Psalmenforschung, hrsg.P.H.A.Neumann, 1976, S. 168-176; K.Rabast, *Das apodiktische Recht im Dtn und im Heiligkeitgesetz*, 1961, S. 66.

29) H.Gunkel-J.Begrich, 「시편 개론」 9장, A.Weiser는 예전(Liturgie)

30) *Ps StudIII Le decalogue*, 1927.

31) 그에 대해서 E.Kutsch, *Das Herbstfest in Israel*, 1955, 158.

32) L. Perit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WMANT 36, 1969, 115-128.

33) L.Peritt, 128 이하.

화)이 일인칭으로 선포되고, 레위적인 초안이 인상적이다.³⁴⁾ 시 50에서 말하는 자는 제사장적인 레위 설교자가 하나님 계명을 심판문으로 활성화 하고 있다. 특히 포로후기 시대에 예언자들이 레위 씨클에서 십계명을 활성화하여 사회와 공동체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였던 운동을 본다. 특히 제 3 이사야의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시 50은 남과 북의 시온 전통과 시내 전통이 융합된 포로 후기 예언적인 레위 씨클에서 전통적인 축제를 지키는 가운데 종교 내부와 세속적 영역에서 반복되는 비리들, 부정과 부패, 불의한 교사, 지도자들을 향해 양심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사제의 설교이다. 예언적인 사상과 제사적인 제의 그리고 양측의 중심인 율법과 계율이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34) A. Bentzen, *Die josianische Reform und ihre Voraussetzungen*, 1926; G. von Rad, *Das Gottesvolk im Deuteronomium*, 1929; Ders. *Dtn-Studien*, 1948, 2. Aufl. 41ff.